
김찬휘의 EBS 학습법

1. 얼마나 많은 지문이 출제되는가?

과연 EBS 지문에서 얼마나 출제된 것일까요? 다음은 2년간의 연계 출제 현황입니다.

■ 수능 독해 33문제 중 EBS 독해지문 출제 수

2011. 6	2011. 9	2011. 수능	2012. 6	2012. 9	2012. 수능
14	16	18	21	19	18
50% 연계	60% 연계	70% 연계			

70% 연계 기준으로 볼 때 독해 지문 33개 중에 18-21개의 지문이 EBS 연계되었습니다.

2. 어떤 교재에 집중할 것인가?

EBS 연계 교재 중, 어떤 교재가 더 중요한 것일까요? 다음은 2년간의 연계 출제 현황입니다.

■ 2011학년도 EBS 연계 추이표(독해)

2011. 6월 모평		2011. 9월 모평		2011. 수능	
수능특강	3	수능특강	4	수능특강	2
영어독해연습1	4			영어독해연습1	1
영어독해연습2	4	영어독해연습2	3	영어독해연습2	1
		300제	5	300제	4
		10주완성	1	10주완성	2
				Final	4
기타	3	기타	3	기타	4

(기타는 더 이상 연계되지 않는 교재입니다.)

■ 2012학년도 EBS 연계 추이표(독해)

2012. 6월 모평		2012. 9월 모평		2012. 수능	
수능특강	11	수능특강	3	수능특강	3
영어독해연습1	5	영어독해연습1	2	영어독해연습1	
영어독해연습2	4	영어독해연습2	3	영어독해연습2	3
		330제	5	330제	4
		수능완성	6	수능완성	8
고교영어듣기	1				

1) 출간 시기가 빨라서 6월 모평과 9월 모평에 많은 지문이 출제된 교재는, 수능에 출제될 후보 지문의 개수가 줄어들게 되죠. 대표적인 교재가 수능특강입니다. 수능특강, 330제, 수능완성은 독해 지문수가 거의 비슷한데요, 수능특강은 6월, 9월 모평에서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수능에 가면 330제, 수능완성보다 그 비중이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영어독해연습1과 2의 경우도 비슷한 운명입니다.

2) 그에 반해 출간 시기가 느린 330제와 수능완성은 6월 모평에 출제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수능에 지문이 출제될 가능성이 높게 됩니다. 결국 출제시기의 관점에서 330제와 수능완성이 중요합니다. 난이도 측면에서 볼 때에도 330제가 수준이 가장 높기 때문에 가장 중점적으로 학습해야 할 교재입니다.

3) 그렇다고 해서 수능특강과 영어독해연습1, 영어독해연습2 학습을 skip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비중이 적더라도 수능 독해는 5권에서 골고루 출제되는 것이고, 또 2월에서 6월까지의 EBS 학습은 이 세 권의 교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험은 자신감이 중요한데, 6월 모평과 9월 모평에서 좋은 점수를 얻는 것이 그 자신감을 배가시킵니다. 결국 모평에서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한 측면에서도 이 세 교재의 학습은 매우 중요합니다.

3. 어떤 문제 유형에 집중할 것인가?

EBS 책에 있는 어떤 유형의 문제에 더 주목해야 할까요? 어떤 유형의 문제가 더 많이 변형되어 출제될까요? 다음은 2년간의 연계 출제 현황입니다.

■ EBS 교재에 있던 문제 유형 분석

2011 합계		2012. 6월 모평		2012. 9월 모평		2012. 수능		6회 총계	
제목	3	제목	2	제목	3	제목	2	대의	25
주제	3			주제	1				
주장/요지	3	주장	2	주장	1	요지	1		
문단요약	1	문단요약	1	문단요약	1	문단요약	1		
빈칸	11	빈칸	4	빈칸	5	빈칸	3	빈칸	23
어법	8	어법	3	어법	2	어법	2	어법어휘	29
어휘	8	어휘	4	어휘	1	어휘	1		
빈칸(연결사)	2			빈칸(연결사)	1	빈칸(연결사)	3	논리구조	17
무관한문장	2			무관한문장	1	무관한문장	1		
문장넣기	1	문장넣기	1			문장넣기	2		
글의순서	1			글의순서	1	글의순서	1		
도표	3	도표	1	도표	1	도표	1	도표	6
장문	1	장문	1					기타	6
지시어	1	내용일치 듣기	1 1	심경	1				

1) 한마디로 지문의 가치가 높은 문제 유형은

- ① 주제, 요지, 주장, 제목, 문단요약 등 글의 대의 유형
- ② 빈칸완성 유형
- ③ 어법, 어휘 유형
- ④ 논리구조

① 제목, 주제, 요지, 주장, 문단요약 등 대의 유형은 논리 구조가 분명한 **논설문**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문의 난이도가 기본적으로 보장되면서 어떤 유형의 문제로도 변형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문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② 빈칸완성 지문이 많이 출제되는 것은 **수능 출제 원리**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교육과정평가원의 ‘수능출제매뉴얼’을 보면, 빈칸을 주제 혹은 요지에 두거나 아니면 주제와 밀접한 세부사항에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빈칸완성 지문은 주제/요지가 분명한 지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로는 빈칸완성 지문의 난이도가 일반적으로 가장 높습니다. 따라서 지문으로 추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③ 어법, 어휘 문제는 엄밀한 의미에서 독해 문제가 아니죠. 따라서 **어떤 유형의 독해 문제로도 변형**이 쉽습니다. 주제 문제를 요지 문제로 바꿔서는 유형 변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글의 순서

문제를 문장넣기 문제로 바꾸기도 난감합니다. 비슷한 범주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어법, 어휘 문제는 어떤 문제로 바뀌어도 지장이 없습니다.

④ 문단의 논리구조 범주(연결사, 글의순서, 무관한문장, 문장넣기)는 글의 **논리적 인과관계**가 분명하거나 급격한 전환이 발생하는 지문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개 논지가 강한 논설문 지문을 제공하게 되기 때문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지만 2012 수능은 비정상적으로 ④ 논리구조 유형 지문에서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지나치게 쉽게 출제하려고 하다 보니 발생한 돌연변이로 보입니다.

2) **도표**문제 6회는 모두 EBS에서 출제되었습니다. 도표 문제는 무조건 EBS에서 출제합니다. 물론 지문은 완전히 바뀐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즉 도표만 숙지해 두면 됩니다. 도표 하나만 따다 써도 EBS 출제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셈이니, 출제하는 교수님들도 마음이 편할 것입니다

3) 그럼 어떤 유형의 지문은 덜 중요한 것일까요? 한번 봐두기는 해야겠지만 복습까지 할 필요는 없는 유형, 저도 변형독해 교재에 잘 선발하지 않는 유형은 어떤 것일까요? 이런 유형의 지문을 건너뛰는 것은 과하다고 보아야겠지만, 집중하거나 복습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 ① **목적**
- ② **분위기, 심경**
- ③ **내용일치, 불일치**
- ④ **장문독해**

① 글의 목적 유형의 지문은 짧고 단순합니다. 그리고 대개 공지, 편지 등의 **실용문**이라 다른 유형으로 변형하기 곤란합니다.

② 분위기와 심경은 대개 일화나 어떤 정황을 말하고 있는데, 이 유형의 지문은 오직 이 유형을 위해서 발탁된 독특한 지문입니다. 분위기와 심경 지문은 목적보다 지문 난이도가 높지만, **지문의 특성**이 너무나 분명하기에 유형 변경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③ 내용일치(불일치) 문제는 **설명문**이 많습니다. 설명문은 논지 전개가 아니기 때문에 주제, 제목, 요지, 주장, 문단요약, 빈칸, 연결사 등으로 전환하기 어렵습니다. 문장넣기, 글의순서, 무관한문장 등으로는 변형할 수 있으나, 출제를 하더라도 연대순 배열이 되는 등 난이도가 떨어지기 쉽습니다. 다만 설명문이 아니라 논설문이라면 어떤 유형으로도 출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EBS 교재에 있는 내용일치 문제는 **소수의 논설문의 경우에만 주목**하면 됩니다.

④ 마지막으로 장문독해는 그 지문에 딸린 문제의 유형 변경은 매우 쉽습니다. 하지만 긴 장문을 그대로 가져다 쓴다는 것이 출제자 입장에서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장문독해 지문을 장문독해로 출제할 수는 없다**고 봐도 됩니다. 그럼 장문독해 지문에서 한 문단만을 떼어서 단문독해 문제로 출제하는 것은 어떨까요? 이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화적 장문은 한 문단만 가지고는 내용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11 수능은 장문독해 지문(수능특강 맨 마지막 지문)에서 한 문단만을 따와서 빈칸 문제로 출제하였습니다. 이것은 두 문단으로 되어 있는 논설문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장문독해 지문은 일화나 사건, 우화 등의 지문은 과감히 skip하고 **주의주장이 강한 논설**

문제만 집중해 주면 되겠습니다.

4. 어떤 유형으로 바뀔 것인가?

다음은 EBS 지문이 어떤 유형으로 바뀌어서 출제되었는가의 정보입니다.

[도표] EBS 지문을 가지고 출제한 유형 분석

2011 합계		2012. 6. 모평		2012. 9. 모평		2012. 수능	
제목	4	제목	2	제목	1	제목	1
주제	4	주제	2	주제	2	주제	1
주장/요지	4	주장/요지	3	주장/요지	2	주장/요지	2
빈칸	8	빈칸	4	빈칸	4	빈칸	4
어법	6	어법	2	어법	2	어법	2
어휘	6	어휘	2	어휘	2	어휘	2
빈칸(연결사)	2	빈칸(연결사)	1	빈칸(연결사)	1	빈칸(연결사)	1
무관한문장	3	무관한문장	1			무관한문장	1
글의순서	1	글의순서	1	문장넣기 글의순서	1 1	문장넣기 글의순서	1 1
도표	3	도표	1	도표	1	도표	1
지시어	1			지시어	1		
내용일치	6			내용일치	1	내용일치	1
		목적	1				
		심경	1				

[도표] 6회 총계

어법	12 all	제목	8 of 12	문장넣기	2 of 6
어휘	12 all	주제	9 of 12	지시어	2 of 6
도표	6 all	주장/요지	11 of 18	목적	1 of 6
		빈칸	20 of 36	심경	1 of 6
		빈칸(연결사)	5 of 6		
		무관한문장	5 of 6		
		글의순서	4 of 6		
		내용일치	8 of 12		

1) 어법, 어휘, 도표 문제는 모두 EBS 지문 혹은 표로만 출제했습니다. 제목, 주제, 요지, 주장은 거의 대부분이 EBS 지문이었구요, 연결사와 무관한 문장, 글의순서, 내용일치 등도 EBS 지문 의존도가 높습니다. 빈칸완성은 절반 가량은 EBS, 절반은 비EBS 지문으로 안배하였습니다.

2) 그에 반해 문장넣기, 지시어, 목적, 심경 등은 EBS 지문 의존도가 낮습니다. 지시어, 목적, 심경

등은 특수한 유형의 지문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EBS 지문을 가져오려면 유형이 같은 것을 가져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따라서 비 EBS 지문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유형은 난이도가 낮기 때문에 EBS 외부 지문이 나온다고 해서 걱정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5.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EBS 교재 학습의 실제

1) 글의 대의(주제, 요지, 주장, 제목, 문단요약) 유형으로 되어 있는 EBS 지문을 공부할 때(2년간 25문항)

EBS 유형	변형된 유형
글의 대의(25)	빈칸(8)
	어법(4)
	연결사(3)
	제목(3)
	어휘(3)
	무관한문장(2)
	글의순서(1)
	요지(1)

① EBS에 대의 문제로 되어 있는 지문은, 빈칸 완성 문제로 가장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따라서 EBS의 대의 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주제문을 찾고, 중심소재와 핵심어, 주제요지와 밀접하게 연관된 어휘 등을 모두 네모를 치면서 암기해야 합니다. 특히 인과관계에 해당하는 어구, 대조관계에 있는 어구 등은 모두 네모를 쳐야 합니다.

② 어법 문제는 지문을 외웠다고 대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법 공부를 충실히 해야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연결사 문제로도 많이 바뀌었지만 난이도가 낮기 때문에 그리 신경 쓸 문제는 아닙니다.

③ 글의 대의 문제가 다른 대의 문제로 바뀐 경우도 있는데요, 이 경우는 대체로 제목 문제로 바뀌었습니다. 요지, 주장, 주제는 글의 핵심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데 반해, 제목은 포괄적인 문제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 빈칸완성 유형으로 되어 있는 EBS 지문을 공부할 때 (2년간 23문항)

EBS 유형	변형된 유형
빈칸완성(23)	글의대의(9)
	어휘(5)
	어법(3)
	내용일치(2)
	글의순서(2)
	문장넣기(1)
	연결사(1)

① 빈칸완성 유형의 지문은 대개 논리적 완결성이 강한 논설문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빈칸완성 유형의 지문은 대개 ‘대의 문제’로 바뀌거나 ‘어휘 문제’로 바뀌었습니다. 빈칸완성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주제, 요지를 지문 밑에 정리하고 넘어가는 습관을 길러야겠습니다.

② 어휘 문제로도 많이 출제되므로, 주제와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는 표현들, 특히 증가하는가 감소하는가, 저해하는가 촉진하는가, 많은가 적은가 등의 변수를 주목해야 하며, 난이도가 높은 어휘 등을 네모를 치고 반드시 암기해 두어야 합니다.

3) 어법 유형으로 되어 있는 EBS 지문을 공부할 때 (2년간 15문항)

EBS 유형	변형된 유형
어법(15)	글의대의(6)
	빈칸(3)
	내용일치(3)
	어휘(1)
	지시어(1)
	연결사(1)

어법 유형은 대의문제와 빈칸완성으로 주로 출제되었습니다. EBS에서 어법 문제를 풀다 보면, 어법적 원리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지문을 다 읽지 않고 (A), (B), (C) 좌우만을 보고 문제 풀이를 끝내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EBS 어법 문제는 수능 어법 문제로 나오지 않죠. 따라서 어법 문제는 어법이 전혀 중요하지 않고, 오히려 그 내용이 중요합니다. 대의문제와 빈칸완성 대비를 위해, 앞에서 언급한 방법론으로 학습해야 할 것입니다.

4) 어휘 유형으로 되어 있는 EBS 지문을 공부할 때 (2년간 14문항)

EBS 유형	변형된 유형
어휘(14)	글의대의(5)
	빈칸(2)
	내용일치(2)
	무관한문장(2)
	어법(2)
	글의순서(1)

어휘 유형은 주로 대의 유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어휘 부분만 보고 학습을 끝내지 말고 반드시 주제와 요지를 체크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평가원은 EBS 지문을 쓰지 않는다. 원저작의 원문을 사용한다.

2012학년도 수능을 치러 보신 수험생들은 아실 것입니다. 분명히 EBS 지문을 연계했다고 하는데, 비슷하긴 한데 EBS 지문보다 약간 어렵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지 않나요? EBS 지문을 그대로 가져다가 썼다면, EBS 지문 그대로이거나 EBS 지문보다 간소해져야 마땅하고 단어나 표현이 쉬워질 수는 있어도 더 어려워지는 경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평가원은 EBS 지문을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평가원은 EBS가 가져다 쓴 원저작의 글을 그대로 가져오거나 그 원저작을 변형하여 출제하고 있습니다. **EBS 연계가 아닙니다. EBS 원저작 연계입니다.** 물론 EBS 지문이 원저작의 지문과 거의 같기 때문에 평가원 출제 지문이 EBS 지문과 거의 같습니다. 하지만 가끔 EBS 집필자가 원문을 많이 바꾼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문제가 생깁니다. 다음의 사례를 살펴봅시다.

2012. 9월 모평 27번

Difficulty in **assessing** information is aggravated **by the overabundance of information at our disposal**. While this is obvious enough in some realms – for example, consider how much information is potentially relevant for estimating the value of Microsoft stock – even when the information set seems less cluttered, information overload, a state of confusion and decision avoidance, can still occur. In one experiment, shoppers in a supermarket were presented with free samples of jams and jellies. In the first treatment, a small selection was available for tasting; in the second, a large selection was available. While everyone likes the idea of abundant choice, and indeed the table with the greater selection attracted larger crowds, it was the table with fewer samples that led to the most sales. The likely reason is that the large selection led to information overload, the feeling that the decision was too complicated for immediate action.

EBS 수능완성, 유형편, p64, 2번

People can have difficulty **processing** information **in certain situations**. The difficulty is aggravated **by reception of more information than is necessary**. In one experiment, shoppers in a supermarket were presented with free samples of jams and jellies. In the first treatment, a small selection was available for tasting; in the second, a large selection was available. While everyone likes the idea of abundant choice, and indeed the table with the greater selection attracted larger crowds, it was the table with fewer samples that led to the most sales. The likely reason is that the large selection led to information overload, the feeling that the decision was too complicated for immediate action. **As we all know from personal experience, procrastination will probably lead to indefinite inaction.**

■ 맨 앞 부분, EBS 지문은 두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9월 모평은 한 문장으로 축약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processing → assessing, more....than is necessary → overabundance로 어려운 표현으로 바뀌어 있고, at our disposal은 아예 EBS 지문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파란색으로 표시된 네 줄은 EBS 지문에 아예 없습니다. 9월 모평 출제자가 새로 창작해서 넣었을 리는 없겠죠? 원저작과 대조해 보세요.

[원문]

책명 : Behavioral Finance / 저자명 : Lucy Ackert & Richard Deaves

Difficulty **assessing** information is **exacerbated** by the **plethora** of information **at our disposal**. **While this is obvious enough in some realms – for example, consider how much information is potentially relevant for estimating the value of Microsoft stock – even when the information set seems less cluttered, information overload, a state of confusion and decision avoidance, can still occur.** In one experiment, shoppers in a supermarket were presented with free samples of jams and jellies. In the first treatment, a small selection was available for tasting; in the second, a large selection was available. While everyone likes the idea of abundant choice, and indeed the table with the greater selection attracted larger crowds, it was the table with fewer samples that led to the most sales. The likely reason is that the large selection led to information overload, the feeling that the decision was too complicated for immediate action. **As we all know from personal experience, procrastination will probably lead to indefinite inaction.**

■ 특히 이 문제는 2012. 9월 모평에서 빈칸문제로 출제되었는데요, assessing을 몰라서 틀린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원저작에는 assessing으로 되어 있으므로 원저작으로 공부한 학생은 쉽게 맞출 수 있었을 것입니다. 9월 모평의 파란색 부분은 원문을 그대로 옮긴 거네요! 원저작의 exacerbated, plethora는 각각 aggravated, overabundance로, 조금 쉬운 단어로 교체했습니다. plethora를 EBS는 more....than is necessary로 고친 것이고, 9월 모평 출제자는 overabundance로 고친 셈입니다.

2012. 6월 모평 23번

Since the 1980's, zoos have strived to reproduce the natural habitats of their animals, replacing concrete floors and steel bars with grass, rocks, trees, and pools of water. These environments may **simulate** the wild, but the animals do not have to worry about finding food, shelter, or safety from predators. While this may not seem like such a bad deal at first glance, the animals experience numerous complications. The zebras **live constantly in fear, smelling** the lions in the nearby Great Cats exhibit every day **and finding** themselves unable to escape. There is no possibility of migrating or of storing food for the winter, which must seem to promise equally certain doom to a bird or bear. In short, zoo life is utterly **incompatible with** an animal's most deeply-rooted survival instincts.

EBS 수능특강 p60의 5번

Since the 1980s, zoos have strived to reproduce the natural habitats of their animals, replacing

concrete floors and steel bars with grass, trees, and pools of water. These environments may imitate the wild, but the animals don't have to worry about finding food, shelter, or safety from predators. While this may not seem like such a bad deal at first glance, the animals experience numerous complications. The zebras living next door to the Great Cats exhibit constantly smell the lions, but find themselves unable to run away. There's no possibility of migrating or of storing food for the winter, which must seem to promise equally certain nervousness to a bird or bear. In short, zoo life is utterly ill-suited to animal's most deeply ingrained survival instincts.

[원문]

책명 : The Art of Choosing 저자명 : Iyengar, Sheena

김찬휘의 변형독해 1탄 29번

Since the 1970s and 1980s, zoos have strived to reproduce the natural habitats of their animals, replacing concrete floors and steel bars with grass, boulders, trees, and pools of water. These environments may simulate the wild, but the animals don't have to worry about finding food, shelter, or safety from predators; all the necessities of life seem to be provided for them. While this may not seem like such a bad deal at first glance, the animals experience numerous complications. The zebras live constantly under the sword of Damocles, smelling the lions in the nearby Great Cats exhibit every day and finding themselves unable to escape. There's no possibility of migrating or of hoarding food for the winter, which must seem to promise equally certain doom to a bird or bear. In fact, the animals have no way of even knowing whether the food that has magically appeared each day thus far will appear again tomorrow, and no power to provide for themselves. In short, zoo life is utterly incompatible with an animal's most deeply ingrained survival instincts.

■ 위의 예를 볼 수 있듯이 EBS는 원저작의 simulate를 imitate로 바꾸었는데, 모평은 simulate로 출제하였습니다. 또한 EBS는 원저작의 incompatible with를 ill-suited to로 바꾸었는데, 모평은 incompatible with로 출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저작에 live constantly under the sword of Damocles, smelling....and finding 으로 되어 있던 부분을, EBS는 living next door to....smell....and find 로 수정하였는데, 모평은 live constantly in fear, smelling....and finding 으로 출제하였습니다. under the sword of Damocles라는 어려운 신화 얘기를 in fear로 바꾸었을 뿐, 기본 문장 구조는 원저작의 원문과 일치합니다.

■ [적중! 김찬휘의 EBS 변형독해]는 EBS 지문을 단 한 개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전부 EBS가 가져온 원저작의 원문을 사용하였습니다. 교육과정평가원의 출제자들이 EBS 지문을 사용하지 않고 원저작의 지문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제 [변형독해] 노선의 올바름을 적나라하게 입증한 것이라 자부하고 싶습니다. 특히 EBS 책의 어휘를 외워야 하는 수험생의 입장에서 어휘가 원저작의 어휘와 같다는 것은, 변형독해 교재에 수록된 지문의 경우에는 EBS 지문으로 보는 것보다 제 변형독해 지문으로 공부하면서 어휘를 외우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원저작과 EBS 지문이 차이가 없는 많은 경우에는 EBS로 공부하는 것도 상관없겠지만, 아무래도 [변형독해]와 함께 공부할 때 마음이 편할 것입니다.

모쪼록 수능-EBS 연계 시대를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수험생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올해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찬휘의 변형독해’

적중! 사례 보고

2011 수능 – 빈칸 위치까지 적중!

김찬휘의 빈칸완성 특강 29번	2011 수능 25번
<p>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p> <p>One of the little understood paradoxes in communication is that the more difficult the word, the shorter the explanation. The more meaning you can pack into a single word, the fewer words are needed to get the idea across. Big words are resented by persons who don't understand them and, of course, very often they are used to confuse and impress rather than clarify. But this is not the fault of language; it is the arrogance of the individual who misuses the tools of communication. The best reason for acquiring a large vocabulary is that it keeps you from being _____. A genuinely educated person can express himself tersely and trimly. For example, if you don't know, or use, the word "imbricate" you have to say to someone, "having the edges overlapping in a regular arrangement like tiles on a roof, the scales on a fish or sepals on a plant." More than 20 words to say what can be said in one.</p> <p>① communicative ② long-winded ③ misunderstood ④ irrelevant ⑤ concise</p>	<p>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p> <p>One of the little understood paradoxes in communication is that the more difficult the word, the shorter the explanation. The more meaning you can pack into a single word, the fewer words are needed to get the idea across. Big words are resented by persons who don't understand them and, of course, very often they are used to confuse and impress rather than clarify. But this is not the fault of language; it is the arrogance of the individual who misuses the tools of communication. The best reason for acquiring a large vocabulary is that _____. A genuinely educated person can express himself tersely and trimly. For example, if you don't know, or use, the word 'imbricate,' you have to say to someone, 'having the edges overlapping in a regular arrangement like tiles on a roof, scales on a fish, or sepals on a plant.' More than 20 words to say what can be said in one.</p> <p>① it keeps you from being long-winded ② you can avoid critical misunderstandings ③ it enables you to hide your true intentions ④ it makes you express yourself more impressively ⑤ you can use an easy word instead of a difficult one</p>

2012. 6월 모의평가 - 오답을 1위, 2위 지문 적중!

2012. 6월 모평 '오답을 1위' 27번 문제 - 김찬휘 변형독해 1탄 50번

[적중! 김찬휘의 변형독해] 1탄 50번

Some people believe that giving to charity is some kind of instinct, developed because it benefits our species in some way. At first, this seems like a strange idea: Darwin's theories of evolution presume that individuals should act to preserve their own interests, not those of the species as a whole. But the British evolutionary biologist Richard Dawkins believes that natural selection has given us the ability to feel pity for someone who is suffering. When humans lived in small clan-based groups, a person in need would be a relative or someone who could pay you back a good turn later. Taking pity on others would therefore benefit you in the long run. Obviously, modern societies are much less close-knit and when we see a heartfelt appeal for charity, chances are we may never even meet the person who is suffering. But the emotion of pity is still in our _____.

- ① customs
- ② education
- ③ brains
- ④ interests
- ⑤ genes

2012. 6월 모평 27번

Some people believe that _____ is some kind of instinct, developed because it benefits our species in some way. At first, this seems like a strange idea: Darwin's theories of evolution presume that individuals should act to preserve their own interests, not those of the species as a whole. But the British evolutionary biologist Richard Dawkins believes that natural selection has given us the ability to feel pity for someone who is suffering. When humans lived in small clan-based groups, a person in need would be a relative or someone who could pay you back a good turn later, so taking pity on others could benefit you in the long run. Modern societies are much less close-knit and when we see a heartfelt appeal for charity, chances are we may never even meet the person who is suffering — but the emotion of pity is still in our genes.

- ① not wanting to suffer
- ② giving to charity
- ③ drawing pity from others
- ④ exploring alternatives
- ⑤ pursuing individual interests

2012. 6월 모평 오답을 2위 23번 문제 - 김찬휘 변형독해 1탄 29번

[적중! 김찬휘의 변형독해] 1탄 29번

Since the 1970s and 1980s, zoos have strived to reproduce the natural habitats of their animals, replacing concrete floors and steel bars with grass, boulders, trees, and pools of water. These environments may simulate the wild, but the animals don't have to worry about finding food, shelter, or safety from predators; all the necessities of life seem to be provided for them. While this may not seem like such a bad deal at first glance, the animals experience numerous complications. The zebras live constantly under the sword of Damocles, smelling the lions in the nearby Great Cats exhibit every day and finding themselves unable to escape. There's no possibility of migrating or of hoarding food for the winter, which must seem to promise equally certain doom to a bird or bear. In fact, the animals have no way of even knowing whether the food that has magically appeared each day thus far will appear again tomorrow, and no power to provide for themselves. In short, zoo life is utterly incompatible with an animal's most deeply ingrained _____.

- ① knowledge patterns
- ② eating habits
- ③ survival instincts
- ④ reproduction instincts
- ⑤ safety zone

2012. 6월 모평 23번

Since the 1980's, zoos have strived to reproduce the natural habitats of their animals, replacing concrete floors and steel bars with grass, rocks, trees, and pools of water. These environments may simulate the wild, but the animals do not have to worry about finding food, shelter, or safety from predators. ① While this may not seem like such a bad deal at first glance, the animals experience numerous complications. ② And yet, most of the complications were settled with no delay in order to ensure the animals' health and safety. ③ The zebras live constantly in fear, smelling the lions in the nearby Great Cats exhibit every day and finding themselves unable to escape. ④ There is no possibility of migrating or of storing food for the winter, which must seem to promise equally certain doom to a bird or bear. ⑤ In short, zoo life is utterly incompatible with an animal's most deeply-rooted survival instincts.

2012. 9월 모의평가 – 빈칸위치 적중! 문단 순서 적중!

[적중! 김찬휘의 변형독해] 3탄 25번

Science is the future, science is making the future, and nations large and small are busy making future scientists. The more science that emerges from this investment in the care and feeding of scientists, the greater the need for the rest of us to follow the gist of the science with sufficient understanding that we can all have a say in how its fruits will be used. In other words, if we the laity are to keep pace with our labs, we need more science writers, not fewer, and more science writing that is clear, wise and eloquent, and that demands to be read. People too often feel estranged from science, convinced that it takes an advanced degree not only to be a scientist, but to understand what scientists do. As a result, they defensively shrug off the whole business as a rarefied geeks' realm of little relevance to their lives. One of the surest cures for scientific illiteracy is great scientific literature that doesn't merely translate technical jargon into plain English or explain arcane ideas simply.

2012. 9월 모의평가 24번

Science is making the future, and nations are busy making future scientists. The more science that emerges from this investment, the greater the need for us to follow the gist of the science with sufficient understanding. In other words, if we the ordinary people are to keep pace with science, we need more science writers, and more science writing that is clear, wise and eloquent, and that demands to be read. People often feel excluded from science, convinced that it takes an advanced degree to understand what scientists do. As a result, they defensively shrug off the whole business as an exclusive realm of little relevance to their lives. One of the surest cures for scientific _____ is great scientific literature, writing that does not merely translate technical terms into plain English or explain complicated ideas simply.

- ① intolerance
- ② immorality
- ③ illiteracy
- ④ irregularity
- ⑤ manipulation

[적중! 김찬휘의 변형독해] 3탄 47번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One reason why the definitions of words has blurred or changed over time is simply because of their misuse. There are a growing number of examples where the incorrect meaning of relatively commonplace language has become more widespread than the original intention or definition.

(A)

Now, imagine that an irate customer sent you a letter about the service he received in one of your stores. If your reply is that you "perused his letter," he's likely to misunderstand, think you're blowing him off, and get even more angry than he was before.

(B)

A good example is the word peruse. Most people think that to peruse something means to "scan or skim it quickly, without paying much attention." In fact, this is the exact apposite of what peruse really means: "to study or read something carefully, in detail."

(C)

But the word has been misused so often by so many people, that this second sense of it — the exact opposite of what it actually means — has finally been accepted as a secondary definition.

2012. 9월 모의평가 43번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One reason why the definitions of words have changed over time is simply because of their misuse. There are a growing number of examples where the incorrect meaning of relatively commonplace language has become more widespread than the original intention or definition.

(A)

Now, imagine that an angry customer sent you a letter about the service he received in one of your stores. If your reply is that you 'perused his letter,' he is likely to get even more angry than he was before.

(B)

The word 'peruse' is one of them. Most people think that to 'peruse' something means to 'scan or skim it quickly, without paying much attention.' In fact, this is the exact opposite of what 'peruse' really means: 'to study or read something carefully, in detail.'

(C)

But the word has been misused so often by so many people, that this second sense of it — the exact opposite of what it actually means — has finally been accepted as a secondary definition and as far as most people know, it is the only definition.

2012 수능 - 11개 지문 적중!

[도표1] 2012 수능의 EBS 연계와, '김찬휘의 변형독해' 지문 적중 사례

수능 특강	영어독해연습 I	영어독해연습 II	330제	수능 완성
3문항 (2문항 적중)	×	3문항 (3문항 모두 적중)	4문항 (도표를 제외한 3문항 중 2문항 적중)	8문항 (4문항 적중)

특히 영어독해연습II는 3문제의 지문 모두를 적중했네요. 저도 놀랐습니다.^^

[도표2] 도표1의 세부 내역

수능 번호	적중! 김찬휘의 변형독해 출전
21	변형독해 5탄 108번
22	변형독해 3탄 27번
24	변형독해 1탄 76번
26	변형독해 4탄 19번
27	변형독해 4탄 31번
31	변형독해 5탄 16번
33	변형독해 1탄 93번
34	변형독해 5탄 25번
38	변형독해 5탄 93번
40	변형독해 3탄 26번
42	변형독해 3탄 8번